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36호

나. 발 의 자 : 정준호 의원 등 24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05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5일

2. 제안이유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에 관한 시민 염려가 커지고 있음.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유통시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유통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 시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9조 제1항에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발의됨.

나. 가락시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 중앙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에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약 8만 1천여 톤 규모의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락시장 거래실적 >

(단위 : 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락 농수 산물 시장	소계	2,437,089	2,425,681	2,372,928	2,308,363	2,316,902
	청과	2,344,344	2,331,383	2,281,457	2,218,455	2,235,696
	수산	92,745	94,298	91,471	89,908	81,206
	전년대비	97.4%	99.5%	97.8%	97.3%	100.4%

- 이중 일본산 수산물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약 1만 8천톤 대비 430톤으로 이는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8년 910톤

규모에서 2022년 430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거래량과 비중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가락시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락 시장	전체 수산물(A)	92,745	94,298	91,471	89,908	81,206
	수입 수산물(B)	24,417	23,001	22,854	24,718	18,019
	일본산 수산물(C)	910	631	545	536	430
	비율					
	C/A	1.0%	0.7%	0.6%	0.6%	0.5%
	C/B	3.7%	2.7%	2.4%	2.2%	2.4%

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안 제39조제1항 후단 신설)

- 안 제39조제1항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 되도록 후단을 신설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 <u>안</u> <u>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u> ----- ----- ----- <u>하며 필</u> <u>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u> <u>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u> <u>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u>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p><u>록</u> 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간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되어 있던 오염수 총 134만톤을 방류할 방침을 결정(2023.1.13.)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확인 후 해안 방류 절차에 착수(2023.8.24.) 하였으며, 지난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되어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¹⁾ 다른 한편에서는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²⁾
- 그러나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 및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³⁾
- 한편 서울시는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23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였는바,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침공」 오마이뉴스, 2023.8.24.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韓에 거의 영향 주지 않을 것」 뉴시스, 2023.8.24.

3) 「일본산 회, 눈길도 안 줘, 오염수 방류 이튿날 텅 빈 수산물시장」 뉴스1, 2023.8.25.

먼저 시내 주요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월~토요일에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과 달리 수입산과 함께 국내산 수산물까지 그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함.

- 또한 산지·어종을 불문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임.
- 그리고 수입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특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를 설치할 예정임.
- 이 밖에도 방사능으로부터 식품이 안전한지 시민 누구나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를 확대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방사능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서울시의 방사능 검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